



가정용 진공포장기 개발

EM마크 획득 · 일본진출

안준영 / (주)제로팩 대표이사

제난 8월 28(화) 기술표준원 (원장 김동철) 주최로 신기술(EM: Excellent Machiner)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EM마크 제도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 홍보, 판로, 자금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에는 6개 업체, 6개 품목이 선정됐으며 포장기계로는 유일하게 (주)제로팩이 선정되었다. 안준영 사장은 "EM마크를 획득하기까지는 힘든 날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 인증서를 받는 순간 그 기쁨과 뿌듯함은 더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더욱더 열심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안준영 사장은 지난 2000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주)제로팩을 설립,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진공 포장분야에만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온 안준영 사장이 지금에 오기까지의 길은



그리 평탄치 만은 않았다.

"제가 (주)제로팩을 설립하기 전, 근무했던 업체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진공포장기계 생산업체인 모 업체에 4억의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돈 뿐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오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때의 일을 계기로 오히려 악착같이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도약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안산시 소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힘든 상황이니 만큼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다 자본금은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안산시 소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이로 인해 지쳤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어 지금의 (주)제로팩이 있

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된 (주)제로팩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샘플을 가지고 대외적이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00년 9월 육가공 전시회에서는 (주)제로팩의 독자적인 기술이 SK케미칼의 눈길을 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5억의 자금을 투자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숨가쁘게 달려온 안준영 사장에게 이번 EM마크 획득은 뜻깊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진공 포장기는 해외에서 수입해 쓰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제로팩이 EM마크를 획득한 진공 포장기는 기존의 제품의 단점을 보완, 새로운 진공 포장기를 선보인 것이다.

(주)제로팩 안준영 사장은 “이번 선보인 진공 포장기는 기존 제품의 보완을 보완하고자 지난 2000년 2월부터 개발에 착수, 연구한 결과 수동으로 작동되었던 제품을 원터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기 흡입기가 탑재돼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진공압력·접착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투명창이 있어 진공시 필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장기내에 필름을 보관할 수 있으며, 살균·소독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제로팩은 진공 포장기 뿐 아니라 기

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진공 필름까지 개발, 특허 출원중에 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진공필름 또한 기기와 함께 수입해 쓰는 실정이었으며,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돼 왔습니다. 이에 저희 (주)제로팩에서는 제품 성능은 높이면서도, 저가 판매를 목표로 연구 개발해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주)제로팩에서 개발된 진공필름은 엠보싱 필름을 삽입해 완벽한 진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 보관 시작일자 및 기간을 체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제로팩의 안준영 사장은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탬이 되자’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곳곳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솔직함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또한 진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준영 사장은 “지금은 진공 포장기 판매에 주력하고 있지만 후에는 부수적으로 필름의 판매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항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주)제로팩 안준영 사장의 강한 열정에서 포장업계의 발전이 예감되며 든든함이 느껴졌다. ☐